

불소발수제시장 일본산 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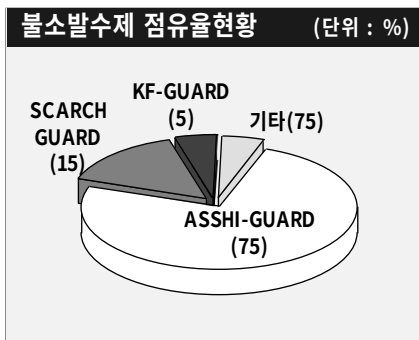
ASSHI-GUARD 70%이상 점유 ... 국산화 불구 가격경쟁 역부족

면·혼방·합섬 등 모든 직물가공에 폭넓게 사용되는 불소발수제가 국산화 이후에도 일본제품이 여전히 국내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0년 이후 국내섬유산업이 고급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유연제·대전방지제·발수제 등 섬유의 후가공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소발수제는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스포츠용품 산업의 성장과 실리콘발수제보다 뛰어난 발수효과로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발수제시장은 금액으로는 300억원, 수량으로는 290톤규모로 계면활성제 단일품목으로는 EOA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KG당 1000~3000원 사이인 일반 계면활성제에 비해 5000~30000원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이에따라 89년부터 한국정밀화학(대표 김병실)이 한국 화학연구소와 공동연구 끝에 91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한국정밀화학은 KF-GUARD상표로 불소발수제를 생산해 수입 대체효과를 기대했으나 예상밖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불소발수제 시장은 대영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본 ASSHI-GLASS의 ASSHI-GUARD가 75%, 한국 3M의 SCARCH-GUARD가 15%, 한국정밀화학의 KF-GAURD가 5%, 기타가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한국정밀화학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것은 일본

제품과의 품질경쟁력 보다는 가격경쟁력의 약화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91년 한국정밀화학이 KF-GUARD를 KG당 5000원에 판매해 KG당 1만원인 일본제품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본제품의 가격덤핑으로 시장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소발수제 가격은 3M의 SCARCH-GUARD는 KG당 2만~3만원, 일본의 ASSHI-GUARD는 KG당 6000~7000원 KF-GUARD는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3M의 가격이 높은 것은 미국에 수출되는 섬유의 경우 수입업자가 3M의 SCARCH-GUARD의 사용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